“진심으로 소통 신심으로 포교” 불교중흥 기틀 닦다

주요 어록으로 본 진우 스님 4년



2022년 9월 28일 제37대 임기를 시작한 진우 스님은 지난 9월 3일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되며 재임에 성공했다. 제37대 집행부를 이끄는 동안 종단 운영과 재정 안정화, 선명상 대중화, 청년 전법, ‘천년을 세우다’를 통한 미래동력 구축, 대사회 역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책을 펼쳐왔다. 주요 어록을 통해 진우 스님의 지난 4년을 돌아봤다. 〈편집자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2년 10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밝힌 다짐이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불교를 만들 것을 국민과 불자들에게 약속했다.

조직 정비, 재정 안정화 제시

종단 운영에서는 전임 집행부의 사업 계승과 시대 변화에 맞춘 조직 정비를 함께 언급했다. 취임 첫날 교역직 소임자를 임명한 진우 스님은 “36대 집행부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책임감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9월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총무원·교육원·포교원으로 구성된 3원 체제의 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기존 조직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재정 자립도 종단 운영의 과제로 제시했다. 2025년 6월 23일 취임 1000일을 맞아 조계사에서 108배를 올린 스님은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종단, 지역 본말사에 재정적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종단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상으로 국민 마음 건강 증진

진우 스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선명상 대중화 사업의 필요성은 취임 직후부터 제시됐다. 2022년 9월 29일 종무원 대상 강연에서 진우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녹여내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현대인들에게 변화를 통한 감동을 주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하루 5분 선명상’을 본격적으로 내세웠다. 9월 28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직접 단상에 올라 선명상에 대한 PT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기술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정신혁명의 시대, 우리가 마음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이다. 한국불교 정통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제 교류 과정에서도 선명상 대중화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10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존 카밧진 박사와 만난 진우 스님은 명상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현대인들은 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정신적 도움을 원하고 있다”면서 “좋은 선수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 곧 선명상이기에 무한한 확장성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청년 소통으로 힙불교 이끌다

청년 전법에서는 당사자와의 소통과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첫날 조계사에서 미래세대 청년 포교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오찬했다. 스님은 “종단이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며 “각자의 생각과 의견은 물론, 제안도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소통하자”고 말했다. 청년들의 생각과 제안을 듣고 전법 역량을 함께 키우자는 취지였다.

‘힙한 불교’로 관심을 모은 새로운 문화 활동도 격려했다. 2024년 4월 30일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예방을 받은 스님은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음악포교에 선명상 요소를 접목할 것을 제안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청년들의 만남을 응원하고 대학 포교 활동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올해 3월 17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청년 불자들의 열정이 불교의 미래”라고 격려하고, 대학별 활동 사례를 들으며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천년 세울 종단 인프라 구축

진우 스님의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명상센터 건립,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미래세대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종단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10월 31일 열암곡 고불식에서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불교중흥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굳은 서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듬해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미래 천년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 2일 천일기도 3주년 기원법회에서는 경주 남산 열암곡 일대 성역화 구상을 밝혔다. “우리는 부처님을 세우는 과업을 넘어 경주 남산을 전 인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장엄해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약자, 재난 피해자를 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재난 피해자 위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도 꾸준히 강조해 왔다. 2022년 11월 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령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재난안전 체계의 재설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스님은 “물질적 이익보다는 생명과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확고한 의식이 바로 서야 한다”며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6월 22일 봉은사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는 노동자와 참사 유족, 이주민, 성소수자 등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의 사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고, 그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수행의 실천이자 부처님 자비의 시대적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혼란에서는 법적 절차와 소통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사태 입장문에서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인들에게는 뼈아픈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2025년 1월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의 예방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얼굴이 다 상했다”며 격려를 부탁하자 진우 스님은 웃으며 “국민들 얼굴이 더 상해있습니다”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긴 진우 스님의 일침에 속이 시원하다는 세간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자리이타’적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의 대담에서 진우 스님은 “AI든 무엇이든 선(善)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며 “AI가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고 이용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